나해·제2098호
사순 제3주일
2021년 3월 7일

춘천주보

야곱 요르단스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는 예수》
1645~50년, 캔버스에 유채,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목 차

02 특집
'죽음'에게 물었더니 '삶'이라고 대답했다 5

03 말씀의 향기
"살아있는 성전"

04 평신도 단상
다시 찾아온 기회

05 열린 마당
순례길을 따라서 6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20,1-17〈또는 20,1-3.7-8.12-17〉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2독서 1코린 1,22-25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3-25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발행인 김주영 · **편집** 문화홍보국 · **주소** (24338)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 · **전화** 033)240-6012 · **팩스** 033)240-6013 · **이메일** ccjubo@gmail.com

'죽음'에게 물었더니 '삶'이라고 대답했다 5

봄날은 간다

글/ 손영순 까리따스 수녀

00시 03분. 자정이 좀 넘은 시간.

따르릉... 따르르르릉.... 한밤중에 수녀원으로 걸려 오는 전화는 둘 중 하나이다. "야식집이죠. 이 시간에도 배달되나요?" 라는 잘못 걸린 전화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호출.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 저쪽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셔요." 어제 병자성사를 받은 은영 아줌마의 아들이다. 자다만 부스스한 얼굴에 물을 찍어 바르고 잠옷에서 수도복으로 갈아입고 중환자실까지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이다. 가끔은 병동 7층에서 응급 콜을 받고 뛰어내려오는 레지던트보다 먼저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한다. 어느 때는 눈이 똥그래진 레지던트가 "수녀님들은 주무실 때도 정장 입고 주무시나 봐요?" 라고 물을 때가 있다. 그래서인지 "그럼요, 소방관이 잠옷 갈아입고 자는 거 봤어요?" 라고 농담으로 대답해도 가끔 그 말을 진실로 알아듣기도 한다.

중환자실로 뛰어가니 00시 10분.

일반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는 1년 반 동안 혼기도 놓치고 직장까지 그만둔 채 간호하던 딸과 눈감기 전에 짝 있는 놈부터 결혼시키자며 장가보낸 아직 어린 아들 내외가 오열을 하고 있었다. 딸에게는 "너무 미안하다." 아들에게는 "그래도 네가 장가가서 참 좋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일찍 혼자되어 두 자녀만을 위해 삶을 헌신하던 60세의 은영 아줌마는 이제 더 이상 농담도 할 수 없고 한때 잘나가던(?) 시절의 자랑과 나물 캐러 다니던 이야기도 내게 해 줄 수 없으며 긴 간병에 가끔 짜증 부리던 딸과도 싸울 수가 없게 되었다. 워낙 친인척이 없어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옆집 할머니와 아들의 대부님밖에 없는 집안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남매를 놔두고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한밤중이라 연락 닿을 곳도 없고 해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효자동 성당으로 갔다. 미사에 들어가시는 신부님을 붙들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장례 절차를 의논 드렸다. 다른 가족이 없어서 빈소에 있어야 할 상주와 함께 퇴계동에 가서 묘지를 확정 받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조금 있으려니 연령회원들이 오셨다. 함께 기도하고 일정을 의논하고 수녀원으로 돌아오니 정오가 다 되었다.

아휴, 졸려라... 나의 봄날이여....

(춘천 성심병원 원목실 근무할 때)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우두본당 주임

가끔 본당에서 몇몇 단체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가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또는 성당 신축 기금이나 타 본당을 돕기 위해서 여러 음식이나 물건을 팔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때때로 어떤 신자 분들은 속으로 의아해하곤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당 안에서 물건을 팔 수가 있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무엇보다 당시의 풍습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파스카 축제가 다가오면 관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모이곤 했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제물이나 속죄 제물로 바치라고 규정한 소와 양, 비둘기를 바치게 되는데(레위 1장 참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가져오기가 사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러한 동물을 판매하여 멀리서 오는 이들이 쉽게 제물을 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통용되던 돈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황제를 신성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바치는 헌금에는 황제의 초상이 없는 돈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함께 성전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자체는 당시 매우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성전은 이러한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얽힌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느님께 정성스러운 제사를 봉헌하고 제물을 바친다는 본래적 의미는 차츰 사라진 채, 인간적 이해관계와 상업적 계산만이 남아버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이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진정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의 노래가 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주님 성전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매 순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

평신도 단상

20년 전 본당 활동을 하다가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느라 활동을 접었다. 십여 년이 지난 후 레지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래서 바로 레지오 Pr에 입단했으나 선서식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유혹이 찾아와 몇 주를 나가지 못하였다. 그럴수록 마음 굳게 다지고 선서식을 마치고 나니 주변에 보이지 않던 냉담자와 외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인 권면과 냉담자 방문을 열심히 하던 중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친정어머니께서 성당에 나오고 싶어도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 수술을 받은 후 대인 기피증이 생겨 둘 이상 모이는 곳에 가면 이상 증세를 보여 교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여러 번의 교리와 미사 참례를 시도해 보았지만 힘들어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주님께 의탁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나는 그분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그 후 그 자매님을 입교시키고 교리반에 함께 들어갔다. 교리반에 한 분씩 들어올 때마다 자매님은 섰다 앉았다를 반복해 가며 불안해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도드리며 안정을 시켰다. 그러자 둘 이상 모인 곳에는 가지 못했던 분이 안정을 찾아 한 시간 넘는 교리를 마쳤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에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다.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교리가 끝나고 자매님은 밝은 미소로 “나는 수술 후 기억력이 떨어져 아무 기억도 할 수 없으니 교리책을 다 써보려고 해요.” 라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이 모습을 본 나도 가슴이 뛰었다.

자매님은 수녀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즐겁게 교리를 받았다. 일 년 후 세례를 받으시고 매일 미사에 성경 쓰기까지 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기도문도 지었다고 즐거워하며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웠다. 주님께 기도드리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렇게 한 분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보니 얼마나 큰 은총인지 깨달았다. 나에게 다시 찾아온 봉사의 기회를 품고 열심히 실천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 주님의 은총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열린 마당 순례길을 따라서 6

행정 공소(옹기 마을 신앙촌)

행정 공소는 본디 외교인 촌이었으나, 1924년경에 김세중 라파엘(이정행 신부의 외증조부)이 일가를 이끌고 양평에서 행정 1리로 이주해 와 옹기점 교우 마을을 이루면서 시작되었다. 후에 조병태 일가가 금광리에서 이주해 이들의 전교로 행정리 마을에 천주교 신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교우촌이 형성되어 공소가 설립되었다. 당시 행정 공소는 전체 주민 모두 교우들이고 옹기점에 종사하며 힘써 이웃 농민들에게 전교했으며, 김세중 라파엘 회장의 아들 김문교 요한 회장과 손자 김창식 아오스딩 회장까지 3대에 걸친 노력으로 영동지역에서 손꼽히는 큰 공소로 발전하였다. 행정 공소는 처음에는 목조 건물이었으나, 1958년 김창석 아오스딩, 김종호 바오로를 주축으로 전 신자가 협심하여 직접 벽돌을 찍어서 38평의 강당을 건립했다. 현 공소 건물은 최창규 발도로메오 신부 재임 시절인 1958년 10월 8일 춘천교구장 구인란 토마스 주교의 집전으로 축복식을 가졌다.

당시는 매우 의욕적이고 왕성한 전교 활동으로 신자 세대수가 50세대 250여 명에 달했다. 또 신자들의 열심한 전교 활동으로 삼산 공소(1958)와 인구 공소(1959)가 설립되기도 했다. 공소에서는 매일 저녁 1시간 정도 만과가 바쳐졌고 주일에는 첨례(공소 예절)를 바쳤다. 이때에 두 명의 사제, 곧 김종석 도마(1987년 선종)와 이정행 사도 요한이 탄생했으며, 이귀녀 칸디다 등 여러 수도자가 배출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옹기산업은 기계화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고, 도시 집중 현상으로 대부분 신자는 인근 도시나 서울로 이주하게 되어, 행정 공소는 쇠퇴기를 맞게 되었다. 공소 건물은 관리 부족과 한때 프란치스코회의 지원을 받던 지체장애인들이 공소에 입주하여 내부를 개조해 사용하면서 건물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2003년 11월 건물의 보수를 시작하여 2004년 9월에 보수공사를 마쳤고, 같은 해 10월 28일에 장익 주교가 중창식을 하였다. 공사를 맡은 민봉영 레오는 1958년 행정 공소 건립 시 목수였던 민 레문도의 아들이다.

춘천교구에서는 옹기 마을 교우촌이면서 오지벽돌로 지어진 행정 공소 건물을 교구 사적지로 지정하고 2009년에 표지석을 세웠다. 많은 순례자가 옛 교우촌 공소를 찾아 편안하게 기도하고 가는 신앙의 터전이다.

❖ 주소 및 연락처 : 강릉시 연곡면 행정2길 14
주문진 성당 관할 ☎ 033-662-9115, 행정 공소 사제관 ☎ 033-662-5264

/글 교회사연구소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3월 카나 혼인 강좌/커플당 3만원

3. 27.(토) 18:30, 애막골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접수: 사목국(033-240-6050, 일주일 전 마감)

예리코클리닉 비대면 약처방

3. 7.(주일) 11시, 예리코클리닉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사 전이나 후에
'평화를 구하는 기도' 혹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매일 밤 9시에 주모경 후
다음 기도를 바칩니다.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재단법인 춘천교구 가톨릭청소년회 후원회원 모집

교구 청소년 사목에 도움을 주실 교우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신협 131-018-384026

재단법인 춘천가톨릭청소년회

*후원해주실 때, 본당명과 이름 (예: 죽림동김대건)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실명으로 입금 시)

가입문의 및 신청 033-252-6062 청소년국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레지아 월례회의

3. 7.(주일) 14시, 말딩회관 4층

꾸르실료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

3. 13.(토) 10:30, 말딩회관

가톨릭회관 야외 십자가의 길

가톨릭회관에 조성된 야외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오셔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지내게 된 사순 시기에 야외에서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도서는 지참 바람)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속초 글라라형제회 ☎ 010-5364-0373

춘천 디모테오형제회 ☎ 010-4705-7720

명도학당 강좌 운영 방법 변경

배경: 정부와 교구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적극 협력 차원

내용: 2021년 1학기 명도학당 대면 강좌는 취소 / 비대면으로만 진행

환불: 대면 강좌 신청자, 비대면 전환 또는 환불

☎ 010-9983-5374 문의

좋은 이웃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춘천·영동: 월~금(10~17시) / 춘천: 월(18:30~21시 이용 가능)

☎ 033-253-6006 춘천, 645-6016 영동

본 당 알 림

성산본당 반주자 모집

성산본당 교중미사(주일 11시) 반주자 구합니다. ☎ 010-9634-4029

신앙 레시피

고준석 신부 지음 · 176면 · 1만원 · 기쁜소식

서울주보에 '신앙레시피'로 연재되었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그 핵심을 추리고, 신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한 이 책은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또 성사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을 통하여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곧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또 성사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그 기준과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에필로그' 중에서-

성소모임/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 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철원DMZ 고구려부동산 오누이 벌꿀
정직·성실 부동산 중개
천연벌꿀 및 화분 판매
☎ 010-3754-2593
김영훈 안토니오 · 안순이 로사

광명 시술원
만성 비염 / 허리 무릎 관리 전문
중풍 예방 관리 전문
춘천 제일 백화점 상가 1층 9호
☎ 010-6388-5995
박광열 이냐시오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 · 박순옥 임마누엘라

환 희 수 산
문어 전문점 / 전국 택배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선어 좌판 5호점
☎ 010-3393-1044
차송주 · 김정순 가타리나

사 회 복 지 회

사순 시기 희생저금통 안내

교황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의 나눔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셨습니다.

"백신은 인류 모두에게 제공될 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21년 희생저금통은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국가를 지원합니다.

사순 시기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하며 세계 어려운 이웃들이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나눔 부탁드립니다.

희생저금통은 성령 강림 대축일(5. 23.)까지 모금합니다.

신협 131-002-444326
농협 301-0109-8015-71
우체국 200022-01-003023

☎ 033-243-4545 춘천교구사회복지회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 · 성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033-1366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심
대상: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인 준 시 설

밀알일터와 함께할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대상: 등록장애인, 기간: 연중 수시, 만18세 이상, 인원 00명 ☎ 033-261-7112 문의

갈바리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어르신 모집

대상: 2~5등급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
☎ 033-644-3474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몬띠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받으신분
운영: 마리아의아들수도회(사회복지법인바다의별)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당신의 바람대로 키워드립니다.

◈ 어부바신협 연금저축공제 ◈

- ✔ 매년 최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 ✔ 계약이전과 추가납입으로 편리한 자금운용
- ✔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안전한 유배당 공제
- ✔ 유사시에 든든한 납입유예제도와 부활제도

조합원님. 연말정산에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연최대 400만원까지 16.5%세액공제
중간에 납입이 어려울 땐 납입유예기능도 가능
지금 바로 연말정산을 가톨릭춘천과 함께하시죠^^

033-255-6742 **가톨릭춘천신협**

일 반 알 림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 자연 · 성지 · 역사 · 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3. 15.~18.(추)/ 3. 21.~24.(추)/3. 27.~29.
4. 5~8.(추)/4. 11.~14.(추)/4. 26.~28.
☎ 02-773-1463, 064-756-6009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3. 14.(주일) 14~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대상: 24~40세 신자
☎ 010-3817-0567, www.columban.or.kr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가톨릭 신학 26 과목
원서접수: 11. 16.(월)~2021. 3. 31.(수)
홈페이지 ci.catholic.ac.kr 원서다운가능
☎ 02-745-8339 문의, 우편신청가능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대상: 15세이상 남
기간: 2021. 2월~12월(2월 예비학교)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 02-828-3600 문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됨으로써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 故 **김수환** 추기경,
1992년 혜화동 성당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더 봄 치 과
임플런트/사랑니발치/보철치료
춘천 KBS앞 스타벅스 2층
풍물시장 공용주차장 주차권 지급
☎ 033-254-2800 / 교우 우대
김태경 원장 · 김보회 프란치스코

춘천 굴삭기.kr
각종 토목 건축 공사
상하수도 · 조경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 · 이은경 테오도라

속초 나드리 여행사
제주도, 추자도, 맛여행 3일-접수중
이스라엘·요르단 11일/이스라엘·로마 12일-9월 이후 접수중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 어대연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짓다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춘천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광고기간: 3개월(12주) / 6개월(24주)
구비서류: 교적사본, 사업자등록증(필수), 광고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www.cccatholic.or.kr
*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 033-240-6012 문화홍보국